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차이

김은재¹, 이외선^{2*}

¹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A comparative study Nursing competency and Major satisfac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Kim Eun Jae¹, Lee Oi Sun^{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Geoch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로 자료수집은 2019년 2월 18일부터 4월 23일 까지 간호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임상실습 전·후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빈도, paired t-test, 피어슨 상관관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 임상실습 후 간호역량은 실습 전보다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t=-1.73, p=.084$), 간호역량의 하위요인 중 교육능력($t=-1.97, p=.050$)과 윤리적 실무능력($t=-209, p=.038$)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2.45, p=.015$). 임상실습 후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일반만족, 관계만족 및 인식만족이 간호역량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식만족이 간호역량을 9.9%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편 및 전공만족도 중 인식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역량,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학생, 간호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nursing competencies and major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use it as basic data for efficient clinical practice education. Data collection by single group pre- and post-design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8 to April 23, 2019 for 201 nursing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for 8 week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aired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3.0. As a result of the study, Nursing competency increased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e than before, but it was not significant($t=-1.73, p=.084$). Among the sub-factors of nursing competency, educational ability($t=-1.97, p=.050$) and ethical practical ability($t=-209, p=.038$) was found to increase significantly. Major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clinical practice than before($t=-2.45, p=.015$). After clinical practice, it was found that general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satisfaction which are sub-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competenc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n nursing competency, it was found that recognition satisfaction explains nursing competency as 9.9%.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linical practice curriculum that can improve nursing competency, develop a program that can improve major satisfaction,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Key Words : Nursing competency,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udents, Nursing

*Corresponding Author : Oi- Sun Lee(leeosun@daum.net)

Received April 4, 2021

Accepted July 20, 2021

Revised May 14, 2021

Published July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간호역량을 함양하여 근거 중심의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1].

간호역량은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2]. 간호사는 임상상황을 고려하여 간호행위를 결정하고 의료팀과 협력하면서 간호를 수행하게 되므로 기술적 술기뿐만 아니라 상황인지, 임상적 추론, 의사결정, 의사소통, 팀워크 역량 등의 간호역량을 갖추어야 한다[3].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경험하면서 총체적인 간호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간호역량을 기르게 된다[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환자권리와 안전이 강조되면서 임상실습은 주로 관찰 위주로 이루어져 전문지식과 간호수행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4].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상실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관련 선행연구에서 간호역량이 간호사 역할이행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간호역량이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이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리고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인지한 간호역량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에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의 차이 비교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나 지금까지 임상실습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간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목표한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자신이 속한 전공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판단 과정으로[5], 선행연구[6]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미래와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보 없이 입시성적에 맞추거나 주위의 권유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전공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학년에서 전공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게 된다[7].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6]에서 전공만족도가 핵심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 간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임상실습 후 이들의 관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의 운영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차이와 실습 후 변수들 간의 관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 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임상실습 후 전공만족도가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인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J시의 일개지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첫 임상실습을 8주간 4개 실습교과목(성인, 아동, 여성, 지역)을 경험한 3학년 204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간호역량 관련 선행연구[3]를 참고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크기 0.3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22명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J시의 일개지역 간호학과에서 첫 임상실습하는 학생 전수인 3학년 22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간호역량

간호역량은 Kim[8]의 요양병원간호사의 간호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간호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간호실무, 안전관리, 비판적사고, 대인관계, 교육, 윤리적 실무, 전문성 개발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1점에서 '역량이 매우 충분하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대학에서 개발한 학과 평가 조사를 Kim과 Ha[5]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문항을 Lee[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일반만족, 관계만족 및 인식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9년 2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임상실습 전 일반적 특성, 간호역량 및 전공만족도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8주간의 임상실습이 끝난 후 간호역량, 전공만족도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220명 중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204명(92.7%)이 연구에 최종 참여하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 전공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 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였다.

- 5) 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간호역량에 미치는 요인은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204명 중 남자가 27명(13.2%), 여자가 177명(86.8%)이었다. 종교는 있다가 65명(31.9%), 없다가 139명(68.1%)이었다. 간호학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직이 잘 되므로가 65명(31.9%)의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61명(29.9%), 가족의 권유로 49명(24.0%), 기타(성적에 맞추어 등) 10명(5.0%)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4)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7(13.2)
	Female	177(86.8)
Religion	YES	65(31.9)
	No	139(68.1)
Motivation to choose nursing	Aptitude and interest match	61(29.9)
	After graduation, you can find a job well	65(31.9)
	At the invitation of the family	49(24.0)
	Etc	10(5.0)

3.2 임상실습 전 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차이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후 제 변수들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간호역량은 실습 전 3.25점에서 실습 후 3.30점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73$, $p=.084$), 간호역량의 하위요인 중 교육능력은 실습 전 3.24점에서 3.31점($t=-1.97$, $p=.050$), 윤리적 실무능력 3.32점에서 3.39점($t=-2.09$, $p=.038$)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도는 실습 전 3.76점에서 실습 후 3.84점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45$, $p=.015$).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일반만족은 3.80점에서 3.87점($t=-2.45$, $p=.032$), 관계만족은 4.03점에서 4.13점으로($t=-2.56$, $p=.011$)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Difference of nursing competency and major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nursing clinical practice (N=204)

Variables	Pre		Post		t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Total	3.25±0.57	3.30±0.54	-1.72	.087		
Practical ability	3.06±0.04	3.09±0.64	-.93	.352		
safety management	3.19±0.05	3.22±0.68	-.69	.485		
Critical thinking	3.22±0.67	3.25±0.65	-.90	.369		
Interpersonal relationship	3.36±0.72	3.42±0.69	-1.64	.102		
Educational ability	3.24±0.67	3.31±.70	-1.97	.050		
ethical Practical ability	3.32±0.65	3.39±.64	-2.09	.038		
Professional development	3.27±0.67	3.31±.65	-1.26	.209		
Total	3.76±0.59	3.84±0.55	-2.45	.015		
General satisfaction	3.80±0.65	3.87±0.63	-2.16	.032		
Relationship satisfaction	4.03±0.72	4.13±0.66	-2.56	.011		
Recognition satisfaction	3.43±0.69	3.49±0.69	-1.82	.070		

NC=Nursing competency, MS=Major satisfaction

3.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 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는 정의 상관관계($r=.3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역량은 일반만족($r=.29, p<.001$), 관계만족($r=.20, p<.001$), 인식만족($r=.30, p<.001$)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3. Correlations of among Variables (N=204)

Variables	NC	MS	GS	RS	RES
	r(p)	r(p)			
NC	1				
MS	.36(<.001)	1			
GS	.29(<.001)		1		
RS	.20(<.001)			1	
RES	.30(<.001)				1

NC=Nursing competency, MS=Major satisfaction, GS=General satisfaction, RS=Relationship satisfaction, RES=Recognition satisfaction

3.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후 전공만족도가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후 전공만족도 하위영역인 일반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이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414~2.243으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의 자기상관성인 Durbin-Watson 값은 1.762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41, p<.001$).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식만족($\beta=.194, p=.015$)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9.9%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competency (N=204)

Variables	B	β	t	p
Constant	2.13	-	8.10	<.001
General satisfaction	.172	.196	1.97	.051
Relationship satisfaction	-.011	-.013	-1.42	.887
Recognition satisfaction	.156	.194	2.45	.015
R ²	.112			
Adj. R ²	.099			
F	8.40			
p	<.001			

4. 논의

본 연구는 8주간의 첫 임상실습을 시행한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 운영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은 실습 전 3.24점(범위 1~5점), 실습 후 3.29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8주간(성인, 지역, 아동, 여성간호학 실습)의 임상실습 후 간호역량이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역량 측정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Chae[3]의 연구에서 52.08점(1~5점 환산시 4.0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는 처음

임상실습을 수행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상태로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학년과 임상실습 기간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간호역량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비교한 논문이 없는 상태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 및 협력관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전문직 발전 등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된 임상수행능력을 2개 학기 간 임상실습을 수행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9]에서 임상실습 후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환자의 안위, 안전을 지키고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간호역량을 함양해야 한다[10]. 그러므로 임상실습 개별교과목이 아닌 학기 임상실습 교과목 교수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간호역량의 하위역량을 살펴보면 간호실무능력은 임상실습 전 3.06점에서 후 3.09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실무능력의 문항을 살펴보면 환자상태 사정, 우선순위에 따른 간호계획 수립, 적절한 간호중재 수행의 간호과정 적용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실무역량은 가장 우선적인 핵심역량으로[11] 실무통합의 학습성도가 간호교육에서 충분히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8주간의 임상실습 교육에도 불구하고 간호실무역량이 향상되지 않아 각 실습교과목 별로 연구대상자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를 통해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안전관리역량은 임상실습 전 3.19점에서 후 3.22점으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 문항이 감염관리 활동, 환자상태보고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서 환자안전관리행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및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 자신감으로 나타났으므로 구체적인 감염관리활동, SBAR(situation-background-assessment-recommendation) 등 표준화된 의사소통능력교육으로 안전관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능력은 임상실습 전 3.22점에서 후 3.25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임상실습 전·후 비판적 사고능력 차이를 본 연구가 없는 상태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선행연구[13]에서 첫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2주간 총 30시간

기초임상실습교육프로그램 후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간호학임상실습에서 학습계약을 적용한 실험군과 기존 임상실습을 적용한 대조군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14]. 비판적사고는 기술 및 정의적 특성 등으로 짧은 시간에 변화가 어려운 상태이나[13] 본 연구대상자는 8주간의 임상실습을 시행한 상태이나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지 않았고,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기존 임상실습 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학습성과의 중요 요인이며, 간호교육은 임상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적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해야 하므로[15] 비판적 사고 함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실습교과목별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후 그 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능력은 임상실습 전 3.36점에서 후 3.42점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3학년 2학기 8주간 임상실습을 수행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전보다 후에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처음 시행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태로 임상현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들과의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대인관계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 능력은 고등교육기관의 핵심역량에서 중요한 인지적 요소이다[17]. 정서적 고통을 동반한 환자 간호에 있어 치료적 의사소통술은 중요하므로[18]. 임상실습 전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순회지도나 집단회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능력은 임상실습 전 3.24점에서 후 3.31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교육능력 차이를 본 연구가 없는 상태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임상실습으로 집단회시 개별과 조별발표를 통해 교육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윤리적 실무능력은 임상실습 전 3.32점에서 후 3.39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는 어느 직업보다도 윤리적 요소와 능숙한 기술이 강조되는 전문직으로[19]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다[20]. 간호사 역량에서도 도덕적 의무가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21] 임상실습을 통해 윤

리적실무능력이 향상된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동안 윤리적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성 개발은 임상실습 전 3.27점에서 후 3.31점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ae와 Park[18]은 임상에서 근거에 기반한 간호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무표준과 강령을 익히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실무를 수행하는 기본이 되며, 조직목표, 체계와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관리능력의 기초가 되므로[22] 전문직 표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시도가 필요하다.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전 3.76점에서 후 3.84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도 하위역량 중 일반만족은 임상실습 전 3.80점에서 3.87점, 관계만족은 전 4.03점에서 4.13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지만족은 3.43점에서 3.49점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은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임상실습을 통해 입학 당시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나 임상실습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게 되면서 전공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일반만족, 관계만족 및 인식만족이 간호역량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식만족이 간호역량을 9.9%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를 관계를 본 연구가 없는 상태로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지만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에서[6] 전공만족도가 핵심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전공만족도가 높고 전공에 긍지를 가질 때 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이 학습성과기반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중심으로 임상실습교육의 효과를 본 것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8주간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 및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임상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역량은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만족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역량과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하위요인인 일반만족, 관계만족 및 인식만족이 간호역량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식만족이 간호역량을 9.9%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간호학부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역량을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를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할 상태로 향후에는 간호대학생 간호역량 도구를 개발하여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공만족도를 임상실습교과목별 만족도 측정도구가 아닌 일반적인 전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상태로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교과목별 만족도를 측정하여 간호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Y. I. Park., J. A. Kim., J. K. Ko., M. S. Chung., K. S. Bang., M. Choe & H. Y. Jang.(2013). An identification study on core nursing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663-67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663>
- [2]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2003). An implementation models for the ICN framework of competencies for the generalist nurse. Geneva: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 [3] E. J. Kim & K. A. Nam. (2016). Development and preliminary testing of nursing competence scale in simulation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49-558.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4.549>
- [4] H. J. Chae. (2019).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 role trans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9), 221-22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9.221>
- [5] K. H. Kim, & H. S. Ha.(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6] M. S. Jung, & H. J. Kwon. (2015).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56-265.

- [7] D. J. Lee.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8] E. J. Kim. (2016).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ursing competence of nurses in the long-term care hospit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 [9] H. S. Kang, Y. S. Kang, & H. H. Hong. (2015). Comparative study on the clinical compet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3(4)*, 495-503.
DOI: <https://doi.org/10.15205/kschs.2015.3.4.49>
- [10] J. S. Park, M. J. Choi, & S. Y. Jang. (2015). The effects of preclinical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on nursing students' confidence in nurs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1)*, 75-8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1.75>
- [11] H. K. Kim. (2015). Development of program outcome self-assessment tool in Korean nursing baccalaureate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15-22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15>
- [12] J. K. Park, & I. S. Seo. (2020).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665-682
DOI : 10.22251/jlcci.2020.20.20.665
- [13] I. S. Seo, S. M. Oh, D. Choi, H. O. Park, & R. W. Ma. (2014). Effects of basic clinical practice program in academic motivati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2276-2284.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4.15.4.2276>
- [14] M. K. Park, & K. W. Sung. (2017).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with Learning Contract on Self-Directed Learning,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1)*, 95-110.
DOI : 10.22251/jlcci.2017.17.11.95
- [15] J. K. Ko, M. S. Chung, M. A. Choe, Y. I. Park, K. S. Bang, & J. A. Kim, et al. (2013). Modeling of nursing competencies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al Nursing Education, 19(1)*, 87-96.
DOI :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87>
- [16] M. O. Lee. (2019).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learning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4(4)*, 145-151.
DOI : <https://doi.org/10.9708/jksoci.2019.24.04.145>
- [17] S. H. Kim, & J. H. Park.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for evaluating core competencies in nursing cancer patients on chemotherapy.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2(5)*, 632-643.
DOI : <http://dx.doi.org/10.4040/jkan.2012.42.5.632>
- [18] S. H. Bae, & J. S. Park. (2013). The recognition of achievement and importance of nursing program outcom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al Nursing Education, 19(2)*, 203-214.
DOI :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03>
- [19] H. S. Kim, K. Oh, & K. J. Lee. (1999). The evaluation of nursing education using adult learning method.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8(1)*, 124-138.
- [20] A. Bdshaw. (1998). Defining 'competency' in nursing (part II): an analytical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7*, 103-111.
- [21] Y. S. Kang, S. J. Lee, I. J. Kim, & K. H. Ahn. (2008). A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of nursing competence for nurses working in general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4(3)*, 219-228.
- [22] M. W. Kim. (2003). *Development of objectives of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nursing core compet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김 은 재(Kim Eun Jae)

[정회원]



- 2011년 2월 :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노인복지관리학석사)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치매, 기본

간호학

· E-Mail : kkhyang@hanmail.net

이 외 선(Lee, Oi Sun)

[정회원]



- 199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9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경남도립거창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감성지능, 간호교육, 성인간호

· E-Mail : leeosun@daum.net